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영광찰보리문화축제’ 성료

공연·체험 프로그램 방문객에 즐거움 선사

영광군 근남면 지내들 보리밭 일대에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7회 영광찰보리문화축제에 2만 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나라 찰보리쌀 최대 재배단지로서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하기 시작한 이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근남면 주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찾은 자녀 손자들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어울림의 장이 되었다.

‘기보리! 해보리! 먹어보리!’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보리밭에서 장어잡기와 보리밭 미로길 걷기, 즉석 풍덩 씨름왕 대회 등 체험행사와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옛 농경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디탈방아 쪼개기, 씨레질 등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문화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도 엿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학습 기회를 선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답게 대형 보리비빔밥 등 보리음식을 시식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많이 마련돼 웰빙푸드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 외에도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페이스페인팅, 궁중 한복체험, 7080 추억의 교실, 향기나는 비누 꽃제형, 포토 머그컵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그 어느 축제보다도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축제였다.

영광찰보리문화축제 추진위원장(정기창)은 “년인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고,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 쌀 소비 촉진 위한 ‘구움과자 자격증반’ 성료

건식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쌀 소비 방안 확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가 ‘구움과자 디저트 셰프반 교육 과정’을 통해 12명의 셰프 자격증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쌀의 소비 촉진과 쌀의 다각적인 활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이번 교육

은 3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7회로 운영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퓨전 떡 요리 전문가 그룹으로 알려진 ‘참새방앗간’을 통해 교육을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쌀 소비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농민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소비방안을 교육하여 교육내용을 전파하여, 농민의 농외소득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어 쌀 소비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기초 전통주반도 진행될 계획으로 오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1시30분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기획(830-68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추진본부장

구례군, 행정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8일 군청 상공실에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혁신과제 발굴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수립한 ‘구례군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보

다 구체화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제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다.

발굴된 주요 과제로는 ICT를 활용한 현장 민원처리, 간부회의 영상 공유, 휴식시간 보장,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과도한 초과근무 자

제, 이장회의 방식개선 등 행정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54개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최정희 부군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행정혁신 과제는 ‘보다 나은 구례’,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혁신’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에서는 지난달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3개 분야 14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간부회의 시간을 업무시간 이후인 9시로 조정, 주간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장 운영, 매월 1회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는 딱딱한 회의장이 아닌 현장 순회 보고회 개최 등 행정혁신에 앞장서 오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 홍길동 축제 기념 ‘SNS 이벤트’

황룡강 봄꽃 주제로 퀴즈 이벤트 진행

“황금빛 5월 황룡강변을 물들인 새로운 꽃은?”

장성군이 2018 장성 홍길동 축제를 기념해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서 황룡강 봄꽃을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장성군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홍길동 축제 퀴즈 댓글 이벤트 게시물에 황룡강변에 개화될 꽃 이름을 댓글에 달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을 태그하면 된다.

댓글 참여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5천원 상당의 배스킨 리빈스 아이스크림 교환권이 경품으로 증정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황룡강변에 유채꽃을 심어 왔으나, 올해는 붉은 꽃양귀비를 심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SNS 매체별 중복 참여는 가능하나 당첨은 한 개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는 축제 첫날인 5월 18일 각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은 매일 블로그와 SNS를

통해 장성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한편, 다양한 SNS 이벤트를 통해 장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제19회 ‘장성 홍길동축제’의 첫날이 제38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동참한다.

18일 개막행사를 앞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를 상영해 추모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9일부터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리고, 20일엔 ‘엘로우 힐링토크’, ‘밴비’와 함께하는 ‘엘로우 콘서트’, ‘황룡강 음악회’ 등 신나는 공연이 열린다.

보성군,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보성몰’ 1주년 특별할인

오는 27일까지 전 품목 10%할인 및 무료배송·적립금 지급



보성군은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인 ‘보성몰’ 오픈 1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8일 간 전 품목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보성몰에서는 보성차로 만든 햇녹차, 고품질 녹차미 인보성쌀 건강에 좋은 게르마늄 흑토타토와 미니토마토, 신토불이 잡곡, 가공식품 등 400여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1,7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보성몰’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만을 엄선·제공해 소

비가자 안심하고 찾는 온라인 직거래창터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별할인 행사로는 ▲농특산물 전 품목 10% 할인과 무료배송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제공 ▲신규회원 5천원 적립금 지급 ▲행사기간 내 상품구매 전 고객 더블 적립금 등을 지급한다.

한편, 군은 보성몰의 활성화를 위해 상세페이지 고급화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지하철 2호선과 KTX용산역, 광주시내버스 광고는 물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엑스포공원 이달 말까지 유료 개방

제20회 나비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함평 엑스포공원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여운이 남아있는 엑스포공원을 오는 31일까지 유료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나비축제가 막을 내려 각종 부스는 철거됐지만, 싱싱한 봄꽃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다 각종 나비

들도 화려한 군무를 펼치고 있는 만큼 자연생태관, 대통령 정원, 함평전지문화유물전시관 등 각종 전시관은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유료로 개방하는 만큼, 나비축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볼거리도 생겼다. 야외 중앙광장에 있던 주무대 대신 그 자리에 ‘드림플리어’라는 전시물이 새롭게 설

치되고, 주변 숲에는 포도 존이 강화되며 각종 초화류 화단도 새 단장을 했다.

또, 240여 종의 선인장이 있던 다육식물관도 사막 자동차길과 오아시스를 조성해 색다른 느낌을 연출했다.

입장료는 축제 때보다는 저렴한 성인 5000원, 청소년·군인 3500원, 어린이·만65세이상 2500원, 유치원생 1500원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시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유망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목사법상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